

■ 괴운(槐雲) 칼럼



가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북아공파 36세)

어느새 추분(秋分)이 지나니 가을도 깊어가고 있다.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들판에는 오곡이 누렇게 익어가고, 산에는 오색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그리고 예부터 가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도 많다.

그러나 가을을 상징하는 본뜻과 일치하는 사자성어도 있지만 뜻이 다른 사자성어도 많다. 먼저 산에는 붉은 잎들로 가득 차다는 단산홍엽(斷山紅葉), 가을이 오면 등불(燭)을 가까이한다는 등화가진(燈火可親),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처음 생길 무렵에 등불 밑에서 글 읽기가 좋다는 신랑등화(新涼燈火), 기러기가 날아오고 나뭇잎들이 붉게 물드는 정안홍엽(征雁紅葉), 국화가 자태를 뽐내고 물이 파랗게 맑은 국오수벽(菊傲水壁), 가을바람과 이슬비가 내리는 추풍세우(秋風細雨), 골짜기에 가을안개가 자욱한 추연출곡(秋煙出谷), 가을 산이 비온 후에 깨끗하다는 추산우제(秋山雨霽), 가을밤이 길다는 추야장장(秋夜長長)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을 잘못알고 사용한 사자성어도 많다. 먼저 천고마비(天高馬肥)이다. 이는 보통 하늘은 높고 말(馬)은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상징하

는데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오랑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라.'란 뜻이다. 중국 후한(後漢) 때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서(漢書) 권94 흉노전(匈奴傳)에 "흉노가 가을이 되니 그들의 말은 살찌고 활은 강하여 곧 성내로 들어 닥친다."라며 흉노에 대비하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이를 피해서 가을이 되면 변방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았으며, 진시황은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았다.

흉노는 몽고족의 일파로서 은나라 때부터 진나라 때까지 약 2천 년간 한족의 고뇌의 씨가 된 표독한 민족이었다. 흉노는 승마와 활쏘기를 잘 했는데, 언제나 집단을 이루어 바람같이 습격하여 인마를 살상하고 재물을 노략질 해 갔다. 흉노가 사는 푸른 초원에는 봄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말들은 토실토실하게 살찌었지만, 10월이 되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와 추위를 풀도 마르고, 흉노족은 말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밀려왔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북쪽에 사는 한족들은 겉을 먹었다. 이처럼 천고마비라는 말은 가을이 되면 말이 식욕이 왕성하여 살찌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북쪽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오니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었다.

그밖에 추풍낙엽(秋風落葉)이란 사자성어도,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낙엽을 말하지만, 전쟁에서 계속 패전하거나, 세력이나 형편이 시들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 추호불범(秋毫無犯)은 가을에는 짐승의 털이 아주 가늘어 지듯이 마음씨가 매우 청렴하여 조금도 남의 것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추상열일(秋霜烈日)은 가을의 찬 서리와 여름의 뜨거운 해처럼 형벌이 엄정하고 권위가 있음을 말한다.

"한산도에 가을이 깊어가니(水國秋光暮), 찬 기운에 놀란 기러기 높이 날고(驚寒雁陣高), 나라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憂心輾轉夜), 새벽달이 어느덧 창에 들어 활과 칼에 비치고 있네(殘月照弓刀)"란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두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한산도 야음(閑山島夜吟)'과 지금부터 1,360여 년 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지은 시(詩) '가을 밤 빗소리를 들으며(秋夜雨中)'에서 '가을바람도 쓸쓸히 울조리나니(秋風唯嗚吟)', 세상길에 참 벗 없음을 이어(世路少知音), 창밖엔 삼경의 비(窓外三更雨), 등잔 앞엔 만리의 마음(燈前萬里心)'을 읊으면서 가을에 사용하는 사자성어 참뜻 몇 가지를 음미해 본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골반을 제대로 돌리고 있나요?



권희원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재정신의원 원장

1. 제대로

날마다 뜨고 지는 해와 달에 구름도 덮이는 가 했는데, 어느새 60에 들었다. 세월이 가히 느리지 않다는 50대의 감지를 넘어서 이제는 서서히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느낌이 점점 깊어진다. 돌아보면 어느 것이든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때로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일이 지나보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다시 하라하면, 이제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제대로'를 사전으로 검색하니, '1)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 2)마음먹은 대로, 3)알맞은 정도로'로 풀이하고 있다. 요즘 들어 이 말들이 왜 이리 커 보이는 것일까?

2. 제대로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제대로 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사람들을 전문가 또는 프로라고 부른다. 전문가(프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 습득에 더불어 의지나 열정을 보탠다.

몇몇 천재를 포함하고라도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큼 피맛을 흘렸겠는가! 전구발명가 에디슨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까.

이러한 분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인에 비하여 제대로(바르게), 빠르게 처리하는데 이 또한 능숙하여 때로는 쉬워 보이기도 한다.

이 쉬어 보임 때문에, 일반인이나 아마추어들이 대충 따라하다가 일정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는 것 같다.

이에 건주어 경계할 일 전문가의 흉내 내기를 하는 일이다. 명확하게 속지가 안됐거나 착각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성급한 설명하거나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도 종종 반성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과거 그러한 행동으로 주변에 고통이나 상처를 주면서 살아온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것이 내 성장의 거름이기도



했다. 자주 반성하고 많이 깊어야 한다. 그런데 잘 안된다.

이달의 책

'박제된 천재' 이상 연구

/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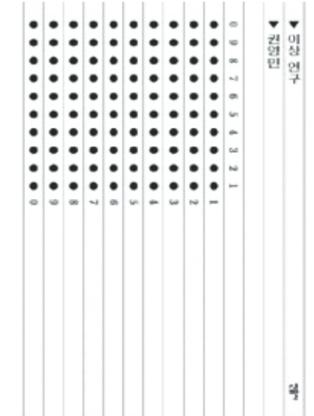


권영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가 2020년 이상(本名 김해경, 1910-1937) 탄생 110주년을 맞아 '이상 연구' (민음사)를 출간한다. 지난 23년 동안 이상에 천착한 연구결과를 결산한 책이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자료를 찾아 시인 이상이 조선인 엔지니어들이 결성한 조선공학회(朝鮮工學會)에서 1930년 임원

으로 활동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권영민 교수는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제된 천재 이상을 대학 초년생 때부터 평생 연구해 왔다. 이상 연구에는 이상의 인간적인 면모와 이상의 학적부부터 그림과 텍스트까지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다.

절판된 저서 '이상 텍스트 연구'를 대폭 수정하고 새로 밝혀진 사실을 보완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저자는 "사물에 직 접적이고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이상의 시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물을 대하는 주체의 시각을 새롭게 변형시킨다"며 "이상의 문학은 모더니티를 초극하는 경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 이달의 시

길(吉)

권민경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
큰 병에 걸리더라도 농담을 해주길
농담이 있으면 괜찮다

오늘로부터 삼십 년 후야, 불이 이슬비를 맞을 거야. 너 그날 죽어
그래요, 그렇군요
모르는 어른을 조심하라는데 모르는 아이는?
앞머리를 반듯하게 자른 사내아이 집에서 깨도 손잡고 따라가고 싶은 말들

암센터 난소암 병동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의 언니. 자주 농담을 했지
밤엔 험상궂은 남편이 찾아와 물이 울었어
그때 그녀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 즈음
아이를 낳을 거니 난소를 조금이라도 지키겠다고
그녀의 말처럼 쾌활하게 흐른 십이 년
나에게는 아직도 삼십 년이나 남았다는데

아직 삼십 년이나 남았어
11월의 첫날
능곡 시장 골목
TV에 나왔다는 북엇국집과 변화가로 이전한 치과 사이를 걸으며 말한다
나중에 파지를 줘더라도 재미있게 살자
네가 구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무엇을 더 미리 알아야 해요?
나는 그저 그래요
손을 맞잡고 너구리 라면 끓여 먹어요

그것은 예언입니까?
삼십 년이 다가가면
돈을 모아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자
맛이 있겠지

11월 첫날 새벽
내가 뺨을 농담과 푸념
편의점표 샌드위치
짬뽕을 한쪽씩 나누어 먹고

權紀 1100년의 역사 재조명 사업

대중회에서는 권기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 3정승 6판서, 청백리 등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현조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천년사'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파종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편집회의: (1차)2019년 6월 24일 11시, 장소: 대중회 ○ 사업기간: 2019년 7월 ~ 2020년 3월(9개월)

○ 사업담당: 편집국장 권행완

○ 작성예시

Table with columns: 권기, 단기, 서기, 호/성명, 파, 관직명, 주요 사건 및 공적, 묘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It lists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across different dynasties.

※ 표기시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병기 가능합니다. 각 파종회에서는 문중사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